

韓國 襦袴와 中國 袴褶의 普遍性和 特殊性에 관한 研究

서울여대 의류학과
교수 김 미 자

目 次	
I. 序 言	IV. 結 言
II. 韓國民族의 源流와 古代文化	참고문헌
III. 韓國 襦袴와 中國 袴褶의 普遍性和 特殊性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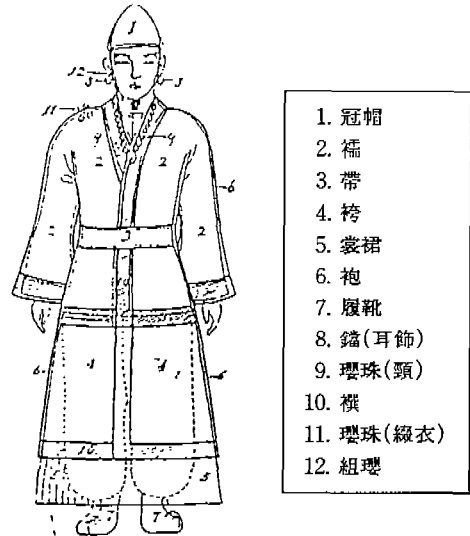
I. 序 言

본 연구는 우리나라 男子의 基本服(도 1: 襦·袴·裳·袍) 중 襦·袴와 中國의 襦·袴의 普遍性和 特殊性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 남자의 바지·저고리는 우리 民族의 傳統服으로 전통성이 매우 깊은 세계에서 오래된 옷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 입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원류는 스키타이 복식(도 2)이다.

한국 민족인 東夷族은 중국 동북방에 B.C. 2000년대 이전에 이미 거주하여 黑陶文化를 주도했으며 중국의 殷王朝는 동이족의 한 분파였다. 戰國時代 이전에 동이족은 중국 민족과 해상 또는 육로로 교류하였다.

고대의 한국이 중국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예 중의 하나가 의복문화로, 우리나라의 의복인 襦袴를 B.C. 4C경에 趙 武寧王이 袴褶으로 채용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襦·袴를 채용한 후 중국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계속된 것은 무엇인지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도 1> 우리나라 古代 基本服飾
(李如星, 朝鮮服飾考, p.1)



<도 2> B.C 5C말~4C초 黃金빛에 조각된 스키타이 무사
(스키타이황금, p.115)

연구 방법은 한국의 기본복인 襦·袴 양식과 중국의 袴·褶 양식을 분류 비교하여 중국의 袴·褶에 나타난 한국의 襦·袴 요소를 추출해 내는 비교·분석 방법을 채택하였고, 형태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의 視覺的 자료인 고구려 고분 벽화(4~6C), 新羅의 土偶, 岩石畫, 人物畫, 김유신묘 12지 호석상, 梁職貢圖의 신라·백제·고구려 國使圖, 唐 장희태자묘 벽화 한인사절(7C 말) 등이다. 이러한 가시적 자료와 삼국의 의복이 유사하다는 문헌기록이 일치하므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襦·袴에 관한 것만 다룬다. 중국의 자료는 벽화, 토우, 俑, 인물화, 석각화 등이다.

시대 범위는 우리나라는 기본복을 주로 입었던 삼국시대(고구려, 신라, 백제)이며, 중국은 趙 武靈王(B.C. 307)이 채택한 胡服(袴·褶)의 형태를 밝힌 후 唐時代 초기(8C초)까지 다룬다.

중국 의복 중에서 우리나라의 襦·袴와 관계 있는 衣服을 주로 다루며 服飾用語는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秦時代에 생긴 무릎 위 길이를 長褶, 엉덩이 길이를 短褶이라고 하였으며, 晉代에 생긴 大口袴보다 좁은 바지를 小口袴라 하였고, 南北朝時代에 생긴 廣袖는 한국 窄袖의 3배는 되며, 大口袴는 晉代의 大口袴보다 넓다.

II. 韓國 民族의 源流와 古代文化

한국 고대문화의 성격과 중국의 殷을 세운 東夷族, 즉 한국 민족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한국 사회 풍속사 연구》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고대 문화의 基盤은 첫째로 韓國 新石器時代의 古아시아系 櫛文土器人, 둘째로 古아시아文化系 東夷族, 셋째로 東夷系 濊貊族에 직결된 無

文土器人의 生活 속에는 中國의 戰國時代를 基點으로 前期는 主로 北方系 文化要因과 後期는 中國系 文化要因이 각각 작용하였다. 또한 韓國 古代社會는 廣意의 Tungus族(原蒙古族)에 시원을 두고 新石器時代부터 수차에 걸친 波狀의 民族移動과 더불어 北方의 胡狄 騎馬族과 혼합 또는 과생하여 하나의 生活文化圈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複合性을 가진 韓國 古代文化의 始原的인 主役은 先秦 中國文獻에 나오는 東夷 또는 濊貊이다.¹⁾

韓民族은 原蒙古 내지 Tungus族과 同系로 간주되며 中國 학자 傅斯年은 夏는 西方系이며 彩陶文化의 主人이고, 殷은 東夷의 한 分派이며 黑陶文化의 主役이라 하였고, 中國의 考古學者 李濟는 山東半島가 中國 初期文化의 중심지요, 殷王朝의 發祥地인 동시에 殷族보다 先住했던 種族이 黑陶文化를 특징으로 한 東夷族이었다고 하였다. 夏王朝로 추정되고 있는 黑陶를 가진 龍山文化는 대략 B.C. 2000年代로 보고 그 이전 中國 東. 北方에는 이미 東夷族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臺灣의 학자 文崇一은 黃河流域의 諸部族이 결합하여 中國民族을 형성하기 이전 이미 山東半島 遼東 韓半島에는 貊人이 거주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濊貊은 小皞(三皇五帝時代)와 同一族이며 후일 虞舜 및 殷族과 同系集團에서 濊貊이 出自한 것이라 하였다.

결국 中國 北方에서 이미 B.C. 2600年代인 新石器時代에 夷, 濊, 貊, 亳, 貉 등의 稱號를 사용하였고 이는 東夷族을 뜻하며 또한 東夷族은 夏, 殷, 周代인 古代 中國 北方에서 渤海灣 遼東灣을 중심으로 海上 또는 陸路로 東進 혹은 西進을 통하여 中國과 교류가 있었다.

戰國時代인 周代 이전에 山東, 河北, 江蘇地方一圓은 主로 東夷族이 분포되었고 陝西 山西 河南에는 漢族의 분포지역이었다.²⁾

1) 權兌遠, 《한국사회 풍속사 연구》 경인문화사, 1980, p.39

2) 權兌遠, 《한국사회 풍속사 연구》 pp.12~17

III. 韓國 襦袴와 中國 袴褶의 普遍性과 特殊性

새로 생긴 유형으로 단기간, 특수층이 착용한 유형으로 정의한다.

韓國 襦·袴와 中國 袴·褶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기 위해 삼국시대의 襦·袴의 유형과 중국 袴·褶의 유형을 살핀 다음, 결론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한다.

1. 우리나라 삼국시대 襦·袴의 유형

보편성이란 많은 사람이 널리 보편적으로 착용한 유형, 전시대에 이어 계속된 유형으로 정의한다. 특수성이란 보편적인 의복에 비해 다른 옷, 즉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의복은 같다는 문헌기록³⁾과 가시적 자료⁴⁾(도 3, 4)가 거의 일치하므로 가장 자료가 많은 고구려 고분벽화⁵⁾ 28층 중에서 襦 315벌, 袴 228벌, 김유신묘 12지 호석상, 唐 장희태자묘 벽화 한인사절(고구려사절, 8C

- 3) 《梁書》〈諸夷傳〉高句麗條(言語諸事多與夫餘同)
- 《梁書》〈諸夷傳〉百濟條(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 《魏書》〈列傳〉百濟條(其衣服飲食與高句麗同)
- 《隋書》〈列傳〉東夷新羅(其王本百濟人. 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
- 《隋書》〈列傳〉東夷百濟(百濟之先出自高麗國. 其衣服與高麗略同. 喪制如高麗)
- 《北史》〈列傳〉新羅傳(風俗刑政衣服略與高句麗百濟同)
- 《北史》〈列傳〉百濟傳((其飲食衣服與高麗略同)
- 《舊唐書》〈列傳〉新羅條(新羅國本弁韓之苗裔也. 其風俗刑法衣服與高麗. 百濟略同)
- 4) ·土偶-夫婦像(短襦 窄袴)
- 단석산 신선사 마애공양 인물상(長襦 廣袴)
- 경주 栢栗寺 이차돈 공양 石幢(短襦 廣袴)
- 천마총 白樺樹皮製 笠의 기마 인물상(短襦 廣袴)
- 울주 천전리 암각 인물상(短襦 廣袴)
- 백제 무녕왕능 출토 유리 등자상(長襦 廣袴)
- 고구려, 백제, 신라 國使圖[梁職貢圖](長襦 廣袴)
- 5) 고분별, 의복별 착용자수

의복별		유	고	상	포	비고	의복별		유	고	상	포	비고	
고분별	(襦)	(袴)	(裳)	(袍)	고분별		(襦)	(袴)	(裳)	(袍)				
평	고산동 10호묘	2	2	2	1	반비	집	식물원제10호분	2	2	1	1	안	
	고산동 6호묘	1	1					삼실총	10	9	3	3		
	수산리벽화고분	10	3	8	2			무용총	24	24	4	9		
	약수리벽화고분	4	2	2	2			통구 12호분	5	5	3	4		
	팔정리벽화고분	7	7		2			장천 1호분	34	28	8	11		
	덕흥리벽화고분	34	34	2	19			장천 2호분	1	1	1	1		
	매산리사신총	2	2	3	3			통구 17호분		1				신, 머리
	감신총	9	7	2	10			마선구 1호분	2	2				
	쌍영총	17	9	8	1			각저총	3	4		4		
	대안리1호분	4	3					우현리대묘	1					
	개마총	7	7	4	4			안악 1호분	4	2	1	1		
	평양역전	3	2					안악 2호분	7		5	5		
	동암리	6	4	3	1			안악 3호분	99	50	9	27		표1. 갑옷21
식물원제9호분	2	2			복사리벽화	15	15							



고구려 백제 신라

<도 3> 故宮博物館소장 梁職貢圖 모사도
(김인숙, 中國 바지原形 考察, 한국의류학회지 vol 13, No. 3, p.276)



고구려 백제 신라

<도 4> 故宮博物館소장 梁職貢圖 모사도
(중앙일보 1987. 8. 31)



<도 5> 등근 깃 內衣
(쌍영총, 한국미술 전집 4-벽화, p.57)



<도 6> 장유세고
(쌍영총 한국미술 전집 4. 벽화)



<도 7> 上: 곧은 깃 내의
 下: 동색선 襦
(안악 3호분, 한국미술 전집 4-벽화 p.13)



<도 8> 帶없는 襦와 細袴
(덕흥리 고분, 고구려문화전 p.38)

초)을 통해서 襦·袴와 차림새의 유형을 추출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한다.

이 시기는 중국의 魏晉南北朝時代와 唐 초기 (8C)에 해당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편년에 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달라 삼국시대로 크게 묶었다.

1) 襦

襦는 남녀·상하 모두 착용하였다. 襦의 基本形 (도 1)은 展開左衽窄袖에 옷길이는 둔부정도 길이 (短衣)이고 옷깃, 선, 밑단, 수구에 異色선이 둘러져 있고 帶를 매었으며, 여밈은 깊은 편은 아니고

선넓이보다 약간 더 여머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옷을 겹쳐 입었는데, 유의 안쪽 옷에서는 등근깃(도 5)과 곧은깃(도 7) 2가지 형태가 보인다. 고분벽화에는 窄袖左衽短衣의 기본형 이외에 長襦(도 5, 6)와 우임과 廣袴(도 12)를 많이 착용하였다. 소매길이는 상류층은 길고(도 3, 4, 5, 13) 하류층은 짧다(도 7, 8). 특수복인 무용수의 長袖襦의 소매길이는 매우 길다.

長襦는 남녀가 모두 착용하였는데 여자의 長襦(도 5) 착용이 남자의 長襦(도 6) 착용보다 많으며, 長襦 착용기록⁶⁾과 일치한다.

6) 《周書》《通典》《北史》百濟條에 출가한 여자의 옷은 袍와 비슷하고(衣似袍) 그 소매가 넓지 않다. (袖微大) 《唐書》新羅條 부인은 長襦를 입었다.

또한 襖의 有無에 따라 다양한 襦의 형태는 황해도, 평양지역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감신총, 약수리고분에 나타난다. 선이 옷깃에만 있는 것(도 8), 밑단에만 있는 것, 수구 옷깃 밑단에 동색 선을 댄 것(도 9), 옷깃은 흰색, 밑단은 흑색, 수구는 분홍색 선을 댄 것(도 10), 선이 전혀 없는 것(도 11)도 있다. 동색선이 수구, 옷깃, 옷섶, 밑단에 있는 기본형은 집안지역 고분(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장천1호분, 통구12호분)에 많다. 상류층의 유에 둘러진 선은 副선이 있는 것(도 5), 무늬가 있는 것, 다양한 색깔이었으나 서민의 선은 주로 흑색이었다. 또한 帶를 매지 않은 襦(도 8)가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끈이나 매듭끈을 달아 여몄을 것이다.

또한 廣袖襦는 벽화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나 고구려인이 大袖袍를 착용했다⁷⁾는 기록으로 廣袖長襦가 착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 뒷받침 자료가 있다. 즉, 돈황 335호 석굴 벽화의 한인사절

및 장회태자묘 한인사절(도 15)이 廣袖長襦를 착용한 것이다. 신라의 김유신묘 12지 호석상(도 16)도 廣袖長襦를 착용하였는데 수구 쪽이 더 넓은 소매이다.

廣袖襦는 4~6C의 벽화에는 없고 隋書(629)와 北史(唐 李延壽 지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廣袖襦는 6C 이후에 유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여밈은 좌밈, 우밈이 공존하였고, 가슴을 덮도록 많이 여민 것(도 9) 같은 것은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

2) 袴

袴는 남녀 모두 착용하였다. 고의 기본형(도 1)은 細袴이며 부리에 대님을 매었다. 袴의 종류는 長袴와 短袴, 廣袴(도 12, 13, 14)와 細袴가 있는데 부리에 선을 댄 것과 선이 없는 것이 있다. 梁職貢圖의 고구려. 백제·신라 國使는 모두 넓은 異色 을 댄 袴(도 3, 4)를 입었는데, 선이 있는 廣袴와 함께 바지부리를 오므리지 않고 입었다. 바지부리를 오므린 방법은 대님을 댄 것(도 6, 8, 9), 행전을 친 것(도 10, 11), (도 12)와 같이 오므린 것이 있다. 女子는 주로 시녀와 舞姬들이 袴(도 14)를 착용하였다.



<도 9> 옷깃수구 밑단에 선
(안악 3호분, 고구려문화전 p.21)



<도 10> 보졸의 행전
(안악 3호분, 고구려문화전 p.27)



<도 11> 襖없는 유와 행전
(약수리 고분, 고구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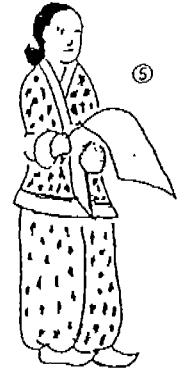
7) 《隋書》《北史》高句麗條 大袖衫
《舊唐書》卷29志 제9 음악2
高麗 樂工人 黃大袖 大口袴
舞二人 紫大袖襦



〈도 12〉 廣 袴
(쌍영총, 한국미술전집 4)



〈도 13〉 장수단유광고
(바지부리에 넓은 선)
(장천 1호분, 고구려문화전 p.77)



〈도 14〉袴를 입은 女人
(장천 1호분, 한국미술전집 4)



〈도 15〉 광수장유광고
章懷太子 墓의 韓人使節
(中國의 美術 II,
강담사, 도판 27)



〈도 16〉 金庾信 墓,
十二支護石像 탁본
광수장유세고
(임영주, 한국문양사, p.206)

袴의 특수성은 넓은 선을 댄 廣袴의 부리에는 대님을 매지 않은 것이다.

3) 차림새

착용방법은 고 위에 유를 입었으며, 속에는 반드시 등근깃이나 끈은깃 옷을 겹쳐 입었다.

上下 二部式 차림새의 樣式에는 기본형인 窄袖 短襦細袴(도 8)와 窄袖短襦廣袴(도 12, 13, 14), 窄袖長襦細袴(도 6), 廣袖長襦細袴(도 16), 廣袖長襦廣袴(도 15)의 차림새가 있다.

2. 중국 袴褶의 시대별 유형

중국의 전통복은 深衣制로 上衣와 下裳이 허리에서 연결된 원피스 형태인데 趙 武靈王이 胡服袴褶⁸⁾을 채용한 것은 中國 衣服史上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 18 참조) 그러나 심종문은〈도 17, 18, 19〉가 착용한 의복은 중국 고대의 계급이 형성된 초기에는 통치계급 인물도 기능적인 의복을 착용했으며 이런 형식은 殷으로부터 春秋戰國시대까지 약 1000년 간 답습되어 사회의 중, 하층 사람들도 착용하고 있었다. 春秋戰國시대부터 儒家에서 제창된 오래된 예의법이 대두되어 넉넉하게 넓은 의복을 입고 폭이 넓은 대를 매는 것이 통치계급 남녀의 존귀한 의상이 되어 상류사회는 筒袖短衣를 입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한편 筒袖, 短衣, 短靴, 帶鉤는 共히 유목민족 특유의 형식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며 실제로 소위 胡服은 殷·周 시대의 노동자나 武士의 일반적인 의복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조무령왕이 胡服을 채용하여 騎射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기병에 의해 중점적으로 사용되어, 그 영향력은 크고 또한 구체적이었다고 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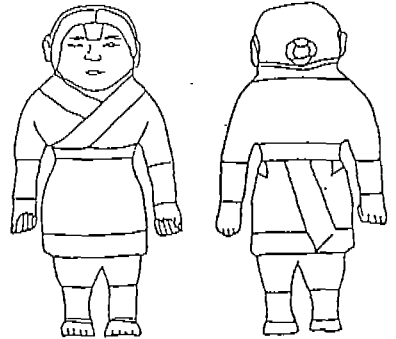
8) 고습이라는 용어는 漢末에 사용되었지만 그 이전의 용어가 없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9) 吉岡眞 外 1人 역, 심종문 지, 《중국고대복식연구 증보판》 京都 : 京都書院 1995



〈도 17〉山西候馬出土, 東周末春秋, 胡人奴隸 고습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72)



〈도 18〉褲褶胡服「陶范」(摹繪) 山西候馬出土(李宵冰 民俗服飾研究, p.35)



〈도 19〉銀製 胡人像 前·後. (고습) (戰國時代, 河南省 洛陽出土, 심종문, 中國古代 服飾研究, p.17)

중국에서 胡服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史記》로, “趙의 武靈王 19년(B.C. 307)에 이르기를, ‘燕나라의 東에는 胡(東胡國)가 있고 國防은 아직 未備하다. 世俗과 다른 것을 행하면 반드시 禍가 미치는 법이지만, 胡服을 채용해서 騎射를 백성에게 가르쳐 나라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하여, 신하들에게 朝廷에서 胡服을 착용하라는 命을 내려 施行하였다.”¹⁰⁾ 여기서의 東胡란 북방 유목민족의 총칭이라는 설,¹¹⁾ 흉노¹²⁾라는 설, 貊과 穢貊(조선)이라는 설¹³⁾이 있다. 중국에서 夷와 胡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하였으나 엄밀히 구별할 수 없게 혼용하였는데, 이유 중의 하나는 북방 유목민족의 갈래와 세력의 부침이 심했고 복잡했

기 때문이기도 하다.

“魏晉南北朝史에 의하면 일찍이 중국에서 戰國時代 匈奴之屬 등이 있었고, 殷代에 苦方, 土方, 周代에 諸戎, 春秋時代에 山戎, 白狄, 赤狄이라 하여有名한 胡服騎射를 愛用했던 趙 武靈王은 비록 「胡」라 칭하였으나 「戎」이라 하지 않았다는 등 胡, 戎, 狄을 同系 同一視한 中國 측의 北方 游牧 騎馬民族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해 왔다.”¹⁴⁾고 하였다.

그러면 《史記》의 胡와 胡服은 어떻게 해석될까? 첫째, 東胡가 匈奴라면, 武靈王이 匈奴를 막기 위해 胡服을 채용할 때 적군인 흉노복을 채용했는 리는 없고 東夷族의 옷, 즉 韓國의 襦·袴(도 1)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襦·袴와 중

10) 司馬遷, 《史記》, 13卷 43, 〈匈奴列傳〉 海寧王國維, 《古胡服考》, p.1

11) 김문자, 〈고대 한국 복식의 원류에 관한 연구-스키타이계 복식문화를 중심으로-〉, p.75

12)李玉,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1990, p.44

박준순, 〈바지考-바지 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과정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35~36

13) 羅洞鉉, 《中國 北方 夷族과 朝鮮 上古史》 弘文堂, 1993. p.210, 213

上古時代의 중국은 夷人들의 獨무대였으나 夏나라가 夷族으로부터 獨립체제를 가짐으로써 夏族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夏族은 동쪽의 夷, 즉 東夷와 극심한 투쟁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동쪽의 夷族을 東夷라 부르고 東夷를 조선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上古의 三皇五帝도 그들이 살고 발흥하였던 곳이 東夷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東夷인 夷族이며 夏나라 이후 殷나라를 맹자도 東夷라 하고 현대의 中國史家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춘추시대 후기 이후에는 夷族을 胡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趙나라 武靈王의 북진정책으로 夷族이 연나라를 중심으로 東西로 갈라지고 서쪽의 胡는 匈奴라 하게 되었고 동쪽의 胡를 東胡(貊, 穢貊)라 부르게 되었다. 이 東胡가 戰國時代의 朝鮮이었다.

14) 權兌遠, 《韓國社會 風俗史 研究》 pp.37~38

국의袴·褶에서 보편성을 찾을 수 있는데, 특수성은 여밈이 깊고 길이를 길게 한 것이다. 또한 東夷族은 한반도로 이동하기 전 B.C. 2600년대(신석기시대)에 중국 북방에서 살았었고, 殷을 세웠으며 戰國時代인 周代 이전에는 山東 河北 江蘇地方 一圓에 살면서 중국과 교류하였으므로(주 2 참조) 東夷의 服飾을 채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또한 중국 학자들(주 17, 18 참조)이 고습의 형태를〈도 17, 18〉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기본복과 같으므로 우리나라가 전했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호가 貉, 穢貉(조선)이라면, 한국 기본복인 襦·袴를 채용하되 襦의 여밈은 깊게, 길이는 무릎까지 길게 하여 적군과 구별하였다.

셋째, 동호가 북방 유목민족의 총칭이라면, 모든 민족이 襦·袴를 착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한 때 東夷와 東胡가 같은 생활문화권에 살면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므로¹⁵⁾ 의복으로 뚜렷하게 東夷와 東胡를 구별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노인우라에서 출토된 흉노족의袴는 같으나 上衣의 깃은 둥근 것으로 보아 곧은 깃 상의와 함께 둥근깃 상의도 혼용된 것 같다. 우리나라 벽화(도 5)에서도 속에 겹쳐입은 內衣 중 둥근 깃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곧은 깃 上衣(襦)가 채용된 것이다.

1) 袴褶의 형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김문자는 “胡服이란 周邊國家의 服裝을 총칭하

는 이름이다. 趙 武靈王이 채택한 袴褶은 스키타이계이며, 우리나라의 基本服과 같다”¹⁶⁾고 하였다.

周錫保는 “趙 武靈王이 채택한 胡服은 山西候馬 出土品의 胡人陶范(도 17)과 같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胡人陶范의 出土時期는 東周末春秋 시대로 武靈王(B.C. 307) 때보다 빠르다. 좌임유와袴를 입고 양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있어 胡人 포로라고 생각한다. 趙 武靈王이 改革한 袴褶은 窄袖, 短衣, 左 褶과 袴를 착용한 것으로 당시의 東胡族의 袴褶의 형태와 유사하다. 《史記》〈趙世家〉에서 唐代 張守節 正義에 이르길 趙 武靈王이 胡服騎射로 개혁하고 上衣 下裳의 제도를 폐지했다고 했다. 《急就篇》(漢代)에 의하면 褶은 겹쳐입는 옷의 外衣로서 袍 같으나 短身에 廣袖이다. 또 좌임의 袍라고도 한다.”¹⁷⁾고 하였다.

李肖冰은 “고습이라는 명칭은 漢末에 보이며, 趙 武靈王이 胡服(즉 袴褶服)으로 개혁한 이유는 全軍 上下 모두가 騎射를 연습하기 위함이었다. 호복(도 18)은 窄袖, 短衣, 몸에 꼭 끼며 革靴 등의 복식은 작전과 활동에 매우 편했다. 호복의 영향은 대단히 커서 많은 지역의 민간 모두에게 퍼졌다. 《事物原會》에서 인용하기를, 《輿服雜事》에 趙 武靈王 때 袴褶이 있었다. 武靈王의 복식 개혁은 공헌도가 상당히 크며, 중국의 복식사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胡服은 (도18)과 같다.”¹⁸⁾고 하였다.

杉本正年은 “出土品을 통해 보면 중국인과 북방

15) 權兌遠, 《韓國社會 風俗史 研究》p.37

東夷와 北方 胡狄系 종족은 하나의 생활 문화권에 살며 상호 문화교류 접촉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중국 고대(夏王朝)부터였다. 북방계 유목민족은 중국 북쪽에서 중국과 접촉하면서, BC. 8C 春秋時代 이후 內蒙古 東部에서 狩獵 遊牧生活을 한 東胡族(鮮卑, 烏桓族)과 BC. 3C 이후 東胡를 征服하여 그 活動地域을 넓힌 匈奴族과 BC. 3C경 Baikal 湖南方に 居住하여 匈奴에게 支配된 Turk系 丁令, 丁靈, 高車 등으로 불리었던 突厥族, 年代가 下降하여 AD. 3世紀末 內蒙古 地方의 蒙古系 柔然(芮芮, 茹茹의稱) AD. 3세기 이후 熱河와 遼河 上流地方에서 遊牧, 狩獵生活을 한 廣意의 Tungus系 契丹族, 그리고 Tungus系로 간주되는 靺鞨(魏志에 勿吉이라고도 칭함) 등이다.

16) 김문자, 〈고대 한국 복식의 원류에 관한 연구—스키타이계 복식문화를 중심으로—〉, p.75

17)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上海:中國戲劇出版社, 1983, p.72

18) 李肖冰, 《중국 서역 민족 복식 연구》신강인민출판사, 1995, pp.34~35
華梅 著, 박성실, 이수용 역 《中國服飾史》경춘사 1992 pp.14~17
長廣敏雄 《中國美術論集》東京: 講談社 昭和59년 pp.109~114

민족과의 접촉은 殷代 이전부터였으며, 중국 변방에서는 이미 胡服이 수렵용, 노동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戰國時代(B.C. 4~5세기) 墓에서 출토된 人物俑 중에는 노예인 듯한 胡인들이 많은데 이것은 王侯들이 북방민족을 포로로 하여 노예로 쓰고 있었던 데에 기인할 것이다.¹⁹⁾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슴의 형태(도 17,18)는 기본복인 유(도 1)와 같다.

본 연구자는 袴褶의 형태가 우리나라의 기본복(도 1)인 襦袴와 같은 것을 東夷族인 우리나라의 유고를 중국에서 고슴으로 채용했다고 보는 첫째 이유였다. 《史記》의 胡와 胡服에 관한 해석 등 자세한 것은 중국 고슴의 시대별 유형에서 고찰한다.

2) 문헌에 나타난 袴褶

먼저 王國維의 《古胡服考》²⁰⁾를 요약한 후 周錫保의 《中國古代服飾史》²¹⁾에서 袴褶에 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국유의 《고호복고》에 의하면 袴褶은 前漢에 이르러 近臣과 武士服으로 되었는데 차림새는 ① 胡服의 관만을 쓰거나 ② 의복만 입거나 ③ 관과 의복을 모두 착용하거나 ④ 관과 대를 착용하였다.

後漢書 武五子傳에 昌邑王이 短衣大袴를 입고 惠文冠을 썼다는 기록은 前漢의 차림새 ③과 같다. 後漢 이후에는 胡服과 함께 여러 종류의 의복과 관이 혼용되다가 後漢 중엽에 袴褶이 士卒과 武官 모두 착용하였다. 後漢 말에는 袴褶이 장급에서부터 하졸(士卒)까지 모두 입었으나, 이 당시 袴褶은 천한 옷으로 인식되었다. 後漢 말에 처음으로 袴褶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魏晉 이후 袴褶은 백관, 士人, 庶人服으로 입었으며 가죽으로 만든 黃皮 袴褶과 韋 袴褶도 있었다.

梁書 陳伯文傳에 의하면 魏에서는 孝文帝太和 10년(486)에 의복제도를 고쳐 漢化한 후에도 袴褶

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착용하였다. 袴褶은 즉 常服이며 大·小, 長·短 여러 종류가 있었다.

晉代에는 袴褶이 天子, 文·武百官의 戎服으로 착용하였다.

晉書 輿服志에 의하면 文武百官의 袴褶은 車駕親戎時와 中外의 비상사태 시에 입는데 服色은 정한 색이 없고 黑色帽을 쓰고 紫標를 달며 絲帶를 띠었다. 標는 緇으로 만들며 길이 4寸, 폭 1寸이다.

南朝에서는 袴褶의 소매와 바지 통을 넓게 하여 漢人의 衣冠制度에 부합하게 하였으며 戎服과 行旅之服으로 袴褶을 착용하였다.

또한 南齊書에 의하면 겨울 朝賀時 袴褶을 착용하였다.

隋代의 袴褶은 天子에서 侍從까지 公服 및 狩獵服이었으며 武官과 侍從服이었다.

隋書예의지에 의하면 天子和 皇太子와 侍從의 狩獵服은 紫羅褶 南布袴, 玉梁帶, 紫絲鞋, 長鞞, 視朝廳訟할 때의 服은 天子에서 內外 九品 이상은 皮弁服 즉 緋大襦白羅裙 金烏皮履 革帶인데 袴褶을 병용하였다. 즉, 황태자, 五品 이상은 紫色 袴褶, 六品 이하는 絳色 袴褶이었다.

武官과 侍從은 平巾幘을 쓰고 紫衫大口袴褶 위에 兩襠甲과 絳衫大口袴褶, 兩襠을 착용했다.

唐 역시 隋와 武弁服과 冠은 같다. 舊唐書 輿服志에 의하면 승마복으로 武弁은 平巾幘에 紫褶(白褶도 可함) 白袴帶 革靴를 착용했다.

君臣의 朔望 朝會服은 袴褶이다. 百官은 초기에는 隋와 같았으나 후에 4등으로 차를 두었다. 舊唐書 輿服志에 의하면, 平巾幘에 5품 이상 紫褶, 6품 이하 緋褶에 兩襠 白袴 기광대 靴, 승마 및 통복으로 사용, 文官은 兩襠을 제한한다고 하였으나 舊唐書 거북지는 袴褶은 3품 이상 紫, 5품 이상 緋, 7품 이상 綠, 9품 이상 靑이다. 袴는 대개 白色이다라고 하였다.

19)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 古代編 -》 pp.118~119

20) 王國維 《古胡服考》 pp.7~26

21) 周錫保 《중국고대복식사》 pp.138~139

唐書 儀衛志에 보이는 儀裝兵服은 모두 袴褶이 나 관이 2종류이다. 진덕관과 袴褶 차림과 平巾幘에 大口袴緋衫, 黃絲布衫大口袴, 緋袴褶, 大口袴緋兩褶, 靑袍袴褶 차림이 있다.

그러나 小吏, 流外(唐代 9級을 말함)는 六朝 이래 唐까지 袴褶을 사용하였다. 袴褶의 색은 晉代 黑袴褶, 隋書 禮儀志 烏總帽 袴褶 皮革, 玄袴褶, 布袴褶, 平巾幘에 白布袴褶, 靑布袴褶, 黃布袴褶, 緋褶白布大口袴, 總角髻靑袴褶이었다.

唐代에 점차 袴褶을 폐지하고 常服(團領, 紗帽)으로 대신하였다고 왕국유는 말했다.

다음은 周錫保의 袴褶에 관한 견해를 요약한다.

南北朝 이래로 北方의 각 민족이 中原(黃河以南, 長江以北의 大部分 地域)을 차지했기 때문에 北方民族의 服飾이 이 지역에 들어 온 것은 당연하며 北方의 각 民族도 漢族 服飾制度를 다량으로 받아들였다.

《說文》에도 좌임의 양식은 다른 민족의 옷의 특징으로, 漢族은 우임이다. 북방민족의 일반복식인 短身の 袍는 유에 비해 약간 긴 上衣로 아래에는 袴만을 입었다. 北族의 袴褶은 朝服, 常服이었다. 袴褶은 그 착용이 간편했기 때문에 漢族들도 착용하게 되었으나 우임에 廣袖를 채택했고 大口袴 양식으로 고쳤다. 이후 魏, 晉, 南朝에 이르러 袴褶의 착용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북조에서는 여자도 袴褶을 착용하였다. 袴褶은 上衣 下裳과 비슷해서 漢族의 衣冠制度에 부합되었다.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바지 등을 묶으면 되었다. 南人이 채용한 이런 服裝은 일할 때 편리하였고 儀禮 形式에도 적합한 것이었다. 東晉(317~420) 때는 여러 侍官이 戎行 때 朱衣를 입지 않고 모두 袴褶을 입고 따랐다.

이런 袴褶服은 南北朝 이후 唐代에 이르기까지 朝見服으로 착용하였는데 廣袖 大口袴 形式이었다. 大口袴 制度는 다시 北族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南北朝 時代를 민족간의 服飾에 서로 영향을

준 중요한 시기라 한다. 袴褶을 착용한 모습은 陶俑과 壁畫 중에 많으며 당시의 이 복장의 보편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²²⁾

3) 可視的 資料에 나타난 袴褶

袴褶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東周末 春秋時代부터 唐代까지 많은 편이다. 시대순으로 고찰한다.

(도 17)은 趙武靈王이 정한 胡服 형태라고 周錫保가 주장한 山西候馬 출토품이다. 左衽短(영덩이 길이) 窄袴로 한국의 袴와 유사하나 밑단에 선이 없고 앞을 많이 여미기 위해 직사각형 섹을 단점이 다르다.

(도 18)은 역시 趙武靈王이 정한 胡服이라고 李肖冰이 주장한 山西候馬 출토품이다. 형태는 (도 17)과 같으나 左衽과 右衽을 모두 제시한 점이 周錫保와 다르다.

(도 19)는 戰國時代의 河南省 洛陽 金村에서 출토된 銀製胡人像으로, 右衽 長褶과 廣袴에 행전을 쳤다. 여밈이 <도 17>보다 많으며 한국 (도 1)보다 많다. 필자는 趙武靈王이 채용한 袴褶의 형태는 진대의 戎服(도 20)으로 미루어 <도 19>와 같다고 본다.

秦代에는 秦始皇(B.C. 221~A.D. 220)陵兵馬俑坑 出土 俑(도 20)이 있다. 차림새는 右衽 窄袖 長褶 細袴이며, 細袴 위에 ①袍만 입은 경우 ②袍



<도 20> 秦始皇陵兵馬俑 포 위에 장승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135)

22)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p.138~139

위에 長褶을 입은 경우(도20)③長褶만 입은 경우가 있다. 褶에는 선이 없고 소매가 좁고 여밈이 깊은 長褶과 옷깃에만 제감선이 있는 長褶(도 21의 右)이 있으며 안쪽에는 2~3가지 옷을 입었음을 끈은것이 겹쳐진 것으로 알 수 있다. 褶의 길이는 무릎까지 길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엉덩이와 무릎 사이의 길이(도 21의 左)도 있다. 細袴에 행전을 친 것도 많다. 유물에서 찾지는 못했으나 엉덩이 길이의 단숨도 계속 착용되었다고 생각한다.

漢代의 袴褶은 《急就篇》에서 보면, 袴褶의 길이가 袍와 같이 길고 廣袖이며 廣袴를 착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秦代의 長褶이 계승된 것으로 유물에 많이 보인다. 漢代의 袴褶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다. 咸阳市 楊家灣漢墓彩繪陶俑(도 22, 23) 8개를 고찰한 결과, 차림새는 몸에 꼭 맞게 여며 대를 배었고 여유분을 뒤로 모은 차림새는 진시황릉의 무사 차림과도 같다. 8개의 俑은 右衽 窄袖 長褶(무릎 위 길이, 도 22-1)과 短褶(도 23)을 착용했다. 차림새는 廣袴에 ①長褶만 입은 차림 ②길이가 다른 長褶 2개를 입은 차림 ③포 위에 長褶(도 22-2) 차림과, ①②③ 위에 갑옷 차림이 있다. 長褶의 옷깃선은 없는 경우(도 22-1)와 있는 경우(도 22-2)가 있다. <도 22-2>는 長褶의 옷깃, 襟선, 脇단, 수구에 이색선이 둘러져 있는 것이 한국의 長襦와 같다. 또한 四川省 박물관 소장

품인 漢代의 칼을 잡은 俑은 옷깃, 수구, 襟선, 脇단까지 모두 선이 둘러져 있는 무릎 위 길이 長褶을 착용하였다. 短褶(도 23)은 옷길이는 엉덩이 길이이고 옷깃, 수구, 脇단에 짙은 갈색 선이 둘러졌는데 趙武靈王의 袴褶인 <도 19>와 같으며, 한국 長襦와 같다. 短褶에 대를 땀으나 여밈이 깊지 않아 빨간색 끈을 매어 벌어지는 것을 막았다. 兵士(도 22)나 하층계급의 袴褶은 窄袖短衣 細袴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여밈이 깊고 가선된 부분이 달랐다. 즉 褶에 선이 없는 것(도 24), 脇단에만 同色선이 있는 것, 옷깃에만 선을 두른 것, 옷깃, 수구, 脇단에 선이 있는 것(도 25), 옷깃과 襟에 異色선이 있는 것, 옷깃, 襟, 수구, 脇단에 모두 異色선이 있고 上下衣가 이어진 長襦(도 26) 등 다양하다. 또한 細袴에 左衽, 窄袖, 옷깃과 옷襟에 선이 있는 短褶(도 27)도 있다.

漢代의 褶의 특징은 ①옷깃이 V형 같이 보이게 선을 낸 것, 선이 없으나 內衣의 옷깃이 마치 겹옷의 옷깃같이 보이는 것이 있다. ②帶가 없는 것도 있다. ③우입이 보편적이지만 좌입도 있다.

魏晉時代(220~420)의 袴褶은 江蘇 南京 출토 東晉 방패 든 武士俑(도 28-1)과 河南 厘師杏園 魏晉墓 출토 武士俑(도 28-2, 3)이 있다. 袴褶의 2가지 유형은 ①廣袴 短褶(도 28-1, 옷깃, 襟, 脇단, 수구에 선이 있음)과, ②細袴 短褶(도 28-2,



<도 21> 좌 : 엉덩이 아래길이 장숨
우 : 무릎 위길이 장숨
「秦始皇陵 兵馬俑坑發掘報告：上」



<도 22> 楊家灣漢墓출토 歩卒 1, 2 고습
(심종문, 中國古代服飾研究, p.90)



<도 23> 세고단숨, 양가만한묘 출토 기병(유영화 중국 고대 군용복식 p.35)



<도 24> 세고단슬 襪, 없음
(김영숙, 漢朝服飾圖樣資料, p.138)



<도 25> 馬夫의 衾에만 加襪하지
많은 단슬과 細袴
(김영숙, 漢朝服裝圖樣資料, p.143)



<도 26> 從官袴褶
(김영숙, 漢朝服裝圖
樣資料, p.107)



<도 27> 세고단슬, 漢 加彩黑陶俑,
上海博物館 (주석보, 중국고대
복식사, p.101)



<도 28-1> 광고단슬, 東晉
강소성박물관 소장



<도 28-2> 세고단슬, 湖南성
박물관 소장



<도 28-3> 세고 둥근깃,
하남성 박물관 소장

(도 28-1, 2, 3, 유명화 중국고대군용복식, p.47)

밑단에만 선이 있음)이 있다. 또한 ③細袴 窄袖 短衣(도 28-3)가 있는데 短衣의 옷깃은 둥글며 수구와 밑단에 선이 있다. 細袴와 함께 둥근깃 上衣차림은 처음 보인다.

袴褶은 무사뿐만 아니라, 侍官도 착용했음을 “東晉(317~410) 때는 여러 侍官이 戎行 때 朱服을 입지 않고 모두 袴褶을 입고 따랐다”²³⁾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또한 《晉書》 書五志와 《宋書》 周郎傳의 기록²⁴⁾으로 보아 廣袖褶의 착용이 많았다.

南北朝 時代(420~589)에는 中原(黃河以南, 長

江以北의 大部分 地域)이 북방민족에 의해 점령당하여 북방민족의 朝服이며 常服인 袴褶이 들어와 袴褶着用이 보편적인 服裝이 되었기 때문에 陶俑과 壁畫 중에 袴褶 착용 모습이 많다.

南北朝時代 袴褶의 유형은 다양하고 착용범위도 넓어져 여러 계층에서 착용하였다. 袴褶의 5가지 유형은

① 細袴 窄袖 短褶을 보졸(도 29)이 착용하였다. 좌측 보졸의 短褶은 옷깃에만 선이 있고, 窄袖이며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간편하게 하였다. 右側

23) 《晉書 禮志》 安帝自荊州至新亭 脂曰 諸侍官戎行之時 不備朱服 悉令袴褶從也
박춘순 <바지> p.62 재인용

24) 심중문 《中國古代服飾研究》 增補版, 京都書院, 1995, p.196

《晉書》 五行志에도 “晉末 關은 작고 의상은 넓고 크다. 이것이 세상에 유행되어 낮은 신분자에게도 일반적이었다”는 기록과

《宋書》 周郎傳의 기록으로 소매 넓은 옷이 上下 모두에게 유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풍은 東晉(317~420)末부터 宋齊時代에 걸쳐 시작되어 梁, 陳時代에 유행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심중문은 말했다.



<도 29> 鄧縣畫像, 褲褶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169)



<도 30> 西安草廠坡出土 武士俑. 복위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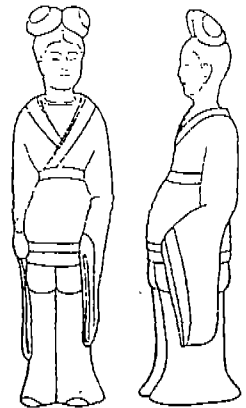
<도 31> 시종의 세고광수습 南唐
(심종문 중국고대 복식연구
(중보판) p.176)



<도 32> 광고 광수장습
(太原北齊妻叔出土武士俑.
錄自《文物》1983年 第10期)



<도 33> 복위 문관 대구고 광수장습
(심종문 중국고대 복식연구중보판 p.188)



<도 34> 시녀(광고광수 장습)
(심종문 중국고대복식연구
중보판 p.200)

보졸의 窄袖 短褶은 선이 없으며 소매 넓이가 약간 넓다. 바지 부리에는 선이 있으며, 대넒은 무릎에서 매었다.

② 細袴 廣袖 長褶은 南朝의 斷琴圖卷에서 侍從(도 31)이 입었다. 長褶의 넓은 소매에 가려져서 옷깃과 수구의 선만 보인다. 細袴의 부리에는 넓은 선이 있고, 대넒은 무릎 밑에서 매었다.

③ 廣袴 窄袖 長褶(도 30)은 北魏의 활을 찬 武士가 착용하였는데 무릎 길이의 長褶의 옷깃, 수구, 밑단에 선이 있고 착수이다. 넓은 바지 부리에는 선이 있고 대넒을 매지 않았다.

④ 廣袴, 廣袖, 長褶(도 32, 33, 34)은 文官, 武

官, 武士, 侍女 등 여러 계층에서 착용하였으며, 병사와 장군은 갑옷을褶 위에 입었다. 長褶의 여밈은 좌임과 우임이 혼용되었다.

廣袖는 (도 34)와 같이 수구 쪽이 더 넓었다. 무사는 간편하게 소매 끝을 매어 입었다.

또한 ⑤ 새로운 袴褶인 大口袴, 翻領 上衣(도 35)가 있다. 이미 魏晉時代에도 무사(도 28-3)가 細袴 등근깃 上衣(도 28-3)를 착용하였다. 翻領 上衣은 對襟式으로 앞이 트이고 左右 옷깃이 같으므로 벌려 입은 옷깃을 닫으면 등근깃이 된다.

唐代的 袴褶의 유형은 4가지로,

① 細袴 廣袖長褶을 武官(도 36)이 착용하였는

데, 長褶의 옷깃 밑단에 선이 있고, 수구 쪽이 더 넓은 褶의 형태는 남북조시대 廣袖褶(도 34)과 같다. 文官은 袴 대신 裳을 채용하여 廣袖褶과 裳을 착용했는데 廣袖는 소매 전체가 넓은 소매이다.

② 大口袴 左衽 廣袖 長褶은 의장대 領官軍官(도 37)이 착용하였는데, 大口袴의 부리에 선이 있고, 長褶의 여밈이 좌임이며, 廣袖는 袖口쪽이 넓은 소매이다.

③ 大口袴 廣袖褶 위에 갑옷을 의장대가 입었다. 袴의 대넘은 무릎 밑에서 뻗다.

④ 서민은 細袴 窄袖褶 위에 반소매 상의(도 38)를 덧입거나, 團領을 袴와 함께 입었는데, 서민이 袴褶(細袴窄袖褶)을 걸옷으로 입은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것은 넓은 소매 褶을 몇 세기 동안 입어 온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좁은 소매 褶은 걸옷이라기 보다는 속에 입는 옷이므로, 겉에는 무엇인지를 걸쳐야 예의라고 인지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단령이 서민부터 황제까지 모두 입도록 채용되었는데, 廣袖褶보다 소매가 좁고 길이가 길어 袍 같은 개념으로 걸옷으로 입기에 적합했고, 동시에 기능적이므로 廣袖褶 대신 團領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고 본다.

IV. 結 言

한국 襦袴와 중국 袴褶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곧 결론이 되겠다.

1. 한국 襦袴의 보편성과 특수성

4~6C의 襦의 보편성은 길이는 엉덩이 길이이고 여밈이 깊지 않고 窄袖이며, 襟은 옷깃, 옷섶, 밑단, 수구 모두 있는 것과 부분적으로 있는 것, 좌임과 우임이 공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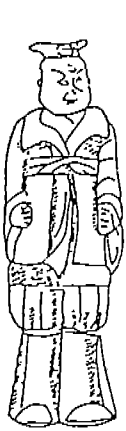
특수성은 長襦(6C, 엉덩이를 덮는 길이)와 廣袖 長襦(7C)이다. 廣袖에는 소매 전체가 넓은 소매와 수구 쪽이 넓은 소매 2종류가 있다.

袴의 보편성은 細袴와 廣袴의 부리에 대넘을 매는 것과 細袴(선이 있거나 없는 것 모두)는 매지 않는 것이다.

袴의 특수성은 넓은 선을 댄 廣袴에 대넘을 매지 않는 것이다.

2. 중국 袴褶의 보편성과 특수성

趙武靈王이 袴褶을 戎服으로 채용했으므로 袴褶 자체가 특수성이 되겠다. 형태는 <도 19>와 같이 길



<도 35> 翻領上衣(對襟式), 大口袴(고승) 복위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168)



<도 36> 唐武官의 고승 (中華人民共和國出土文物展 圖 170)



<도 37> 의장대 領官軍官 (唐 李壽 묘벽화 유영화 중국고대군용복식)



<도 38> 당의 서민 <심종문 중국고대복식 연구 증보판>

이는 한국의 보다 길어 엉덩이를 덮었고, 여밈도 깊었을 것이며, 옷깃은 곧은 것으로 <도 17, 18>과는 달랐다고 본다. 진대의 戎服도 곧은것이다.

秦代의 戎服의 보편성은 小口袴 위에 엉덩이를 덮는 短褶을 착용한 것이며, 小口袴의 부리에는 행전을 쳤다. 특수성은 長褶(무릎길이)을 小口袴 위에 착용한 것과 袍 위에 長褶을 겹쳐 입는 것이다.

漢代 戎服의 보편성은 秦代와 같이 小口袴를 착용한 후 袍 위에 短褶을 겹쳐 입은 입음새이다. 특수성은 기병과 서민의 小口袴 단습 착용으로褶의 길이가 秦代보다 짧아졌다. 또한 小口袴 위에 深衣形 上衣를 착용했다. 바지에 대님을 모두 매지 않았다.

晉代의 戎服의 보편성은 小口袴 短褶 착용이며, 특수성은 大口袴의 착용과 廣袖褶 착용이다.

南北朝時代의 보편성은 大口袴와 小口袴 위에 廣袖褶과 短褶 착용이다. 大口袴/廣袖褶, 小口袴/廣袖褶, 大口袴/短褶, 小口袴/短褶이 모두 착용되었다.

바지를 무릎 밑에서 묶은 것은 戎服用이고, 묶지 않은 것은 便服用이다.

특수성은 廣袴 위에 착용한 短圍領이다.

隋代의 보편성은 廣袖褶大口袴는 문관과 무관복이고 袴褶(窄袖 小口袴)은 戎衣이었다. (무릎 밑에서 묶음)

唐代 武官의 보편성은 小口袴 廣袖褶 착용이고, 특수성은 小口袴 短褶의 속옷 역할이다. 즉 小口袴 短褶 위에 半臂와 圍領을 착용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褶의 색은 漢, 魏 이래 絳色. 朱色, 晉代 無定色, 隋代 天子. 皇太子. 5품 이상 紫, 6품 이하 緋, 袴는 대개 白色, 幘은 赤 혹은 黑이었다.

3. 한국과 중국의 襦·袴 비교

한국 襦는 보편적으로 여밈이 깊지 않은 엉덩이 길이의 窄袖襦가 4~6C에 착용되었고, 7C 廣袖長襦(엉덩이를 덮는 정도) 착용하였다. 廣袖에는 소

매 전체가 넓은 소매와 수구 쪽만 넓은 소매가 있었다.

중국 襦는 보편적으로 여밈이 깊어 가슴 전체를 덮었고, 엉덩이를 덮는 短襦·窄袖襦, 廣袖를 5C에 입었고, 大口袴가 東晉代(4C)에 생겼으며, 수구 쪽이 더 넓은 소매는 7C까지 보편적으로 입었다.

특수성은 短圍領이 5C~6C에 생긴 것이다.

한국 袴는 부리에 대님을 매며, 대님을 매지 않는 袴는 細袴이다. 넓은 선을 댄 廣袴는 대님을 매지 않으며 중국보다 좁다.

중국 袴는 大口袴, 小口袴의 무릎 밑에서 대님을 묶으며 戎事에 묶는다. 무릎 밑에서 묶지 않을 경우는 便服이다. 大口袴의 넓이는 치마같이 넓으며 한국 廣袴보다 더 넓다.

참고문헌

- 1) 《고구려문화》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2)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1973
- 3) 박경자 덕홍리 고분벽화의 복식사적 연구 《복식》 5호 1968
- 4)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대 출판부 1983
- 5)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至社 1983
- 6)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ABSTRACT

The Universality and Uniqueness of Korean You-Go(襦·袴 an upper grment-a pair of trousers) and Chinese You-Go(襦·袴)

In old Korea from the 4th century ot 6th century the lapels of You, and upper garment folded slightly. It had tight sleeves and its length was not long reaching to the hips. But from the 7th century the sleeve of You became wider and its length became longer.

Chinese You folded very deeply across the breast and its sleeve was tight. The length of Chinese You was short too, stretching out to the hips. From the 5th century the sleeve of the Chinese You became wider. Chinese trousers with wide crotch appeared in the 4th century during the time when Ezst Jin Dynasty(晉) ruled China. The upper garment with the wide sleeve was common by the 7th century in China. What is specially noteworthy is that Short-dalnyung(短圍領) appeared in the 5th~6th century.

In old Korea strings were used to tie the bottoms of the trousers. Trousers with tight

crotch did not need the strings. Korean trousers with wide lines were narrower than the Chinese trousers at the bottom and it was not necessary to use the strings for people to put them on.

In China there were both of wide trousers and tight trousers. People tied trousers around the kness with the strings in the formal places, but they did not tied the trousers with the strings when they wore the ordinary clothes. Chinese trousers were very wide just like a skirt and they were much wider than wide Korean trousers.